

김세영 LPGA JTBC파운더스컵 우승

27언더파 261타 시즌 첫승 72홀 최다언더파 타이 기록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년차 김세영(23·미래에셋)이 JTBC파운더스컵(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통산 4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김세영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와이일드파이어골프장(파72·6538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8개를 엮어 10언더파 62타, 최종합계 27언더파 261타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승을 달리며 신인왕에 올랐던 김세영은 이날 LPGA 투어 72홀 최다언더파 타이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01년 스탠다드레지스터핑대회에서 은퇴한 골퍼였던 애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꿈의 타수인 18홀 59타를 치며 작성한 기록이다.

1번홀(파4)에서 전반 라운드를 시작한 그는 2번홀(파5)에서 1타를 줄인 뒤 4~6번홀(파3)에서 연달아 버디를 잡았다. 이후 8번홀(파4)에서도 1타를 줄여 전반 라운드에서만 5언더파를 기록했다.

이어 11번홀(파5)에서 이글을 쏜내고, 13번홀(파4)과 15번홀(파5), 16번홀(파4)에서도 1타씩 줄이며 이날 하루 동안 10언더파를 달리는 기염을 토했다.

세계랭킹 1위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19·한국령 고보경)는 이날 7타를 줄이며 맹추격전을 펼쳤지만 5타 차이로 2위에 랭크됐다.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



김세영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와이일드파이어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JTBC파운더스컵에서 통산 4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7년 만에 우승을 노렸던 지은희(30·한화)는 이날 1타를 줄이는데 그쳐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폴라 크리머(미국)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호주동포 이민지(20·하나금융그룹)와 이미림(27·NH투자증권)은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로 공동 20위, 디펜딩 챔피언 김효주(21·롯데)는 공동 28위(14언더파 274타)를 기록했다. 은퇴를 공식 발표한 박세리(39)는 2타를 줄여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로 공동 42위에 머물렀다.

김민근기자

고창모양성배 탁구대회 성황리에 마쳐

봄의 시작과 함께 '제4회 고창모양성배 탁구대회'가 고창군립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19일 열린 대회는 고창군통합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창탁구연합회가 주관했으며 10개 부문에 500여명의 탁구를 사랑하는 호남지역 생활체육인이 참여해 열린 경기를 펼쳤다.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김상호 고창군부군수, 김정용 전라북도탁구연합회장 등 많은 내빈과 탁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회를 빛냈다.

김상호 부군수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을 방문한 동호인을 환영한다"며 "대회를 통해 동호인 간 친목도모와 탁구발전에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단체전 5개 부문과 개인전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각 부문별 대회 결과로는 개인전 혼성부 김진희(영광), 혼성2부 최병길(군산), 남자부 국귀순(김제), 여자부 이그 최은희(군산), 어트스링고 이경택(고창)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단체전에서는 선운산부문 모현(익산), 복분자부문 하나로(익산), 방장산부문 정음탁구동호회, 모양성부문 고창탁구C, 어트산부문 고창A팀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KBO,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 28일 개최

겨우내 집들이 있던 프로야구가 개막을 위한 기지개를 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2016 타이어뱅크 KBO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10개 구단 감독들과 두산 김재호·유희관 삼성 박한이·차우찬, NC 이종욱·이재학, 넥센 서건찬·김세현, SK 김강민·김광현, 한화 정근우·안영명, KIA 이병호·윤석민, 롯데 황재균·손승락, LG 류제국·박용택, kt 박경수·조부근 등이 참석해 입담 대결을 펼친다.

미디어데이 뿐만 아니라 팬 사인회와 포토타임을 통해 팬과 선수들이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팬사인회 참가자에게는 선수 화보로 꾸며진 사인지가 제공된다.

오후 3시부터 스포터와 KBO 모바일 앱을 통해 생중계되는 공식 행사에서는 10개 구단 감독 출신표와 선수들의 시즌을 앞둔 소감 영상 공개를 듣는다.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도 마련된다.

김민근기자

추신수 3경기 연속 안타 행진...타율 0.286 으로 소폭 상승

1번타자로 선발 출장 3타수 1안타 1도루

'추추트레인' 추신수(34·텍사스)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추신수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우익수 겸 1번타자로 선발 출장, 3타수 1안타 1도루를 기록했다.

등 통적으로 인해 13일 오를랜드 애슬레틱스전 이후 휴식을 취했던 그는 7일 만인 전날 20일 복귀해 안타를 신고했다.

이어 그는 이날까지 연속 안타를 때리며 몸 상태에 대한 우려를 날림이 날랐다. 복귀 전까지 고려하면 3경기 연속 안타다.

또 도루까지 추가하며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시범경기 타율은 0.27에서 0.286(21타수 6안타)으로 소폭 상승했다.

1회말 첫 타석에서 추신수는 앤드류 히니와 폴카운트 승부를 벌였지만 좌익수 뜬공으로 돌아갔다.

팀이 0-3으로 끌려가던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추신수는 히니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좌익수 방면으로 떨어지는 날카로운 안타를 만들었다.

내친김에 그는 2루까지 훑쳐 득점권에 도달했지만 후속타 불발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5회말 무사 1, 2루에서 추신수는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지만 호세 알버레스에게 좌익수 뜬공을 때려 아웃됐다.

반대편의 최지민(25)은 팀이 5-1로 앞섰던 6회 2사 만루에 대타로 기회를 잡았지만 호세 발데스피나의 강속구에 밀려 좌익수 뜬공에 그쳤다.

최지민은 1루 수비로 경기를 이어갔다. 9회 선두타자로 다시 나선 그는 유격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최지민은 3경기 연속 무안타를 기록했다. 타율은 0.214에서 0.205(44타수 10안타)까지 떨어졌다.

경기는 초반 우위를 잡은 에인절스의 5-1 승리로 끝났다.

김민근기자



슈틸리케호, 연속 무실점·승리 기록경신 도전

지난해 경기당 0.2실점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기맹국가운데 최소 실점률을 자랑한 슈틸리케호가 이번에는 연속 무실점 기록 경신을 노리고 있다.

울리 슈틸리케(62·독일)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24일 열리는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레바논전과 27일 치르는 태국과의 친선경기에서 무실점으로 승리할 경우 두가지 기록을 세우게 된다고 대한축구협회가 21일 밝혔다. 첫 번째는 연속 무실점 승리 기록이다.

슈틸리케호는 지난해 9월 라오스와 2차 예선전을 시작으로 6연승을 달렸다. 연승을 달리는 동안 실점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기존 기록은 1978년 함흥철 감독과 1989년 이회택 감독이 세운 7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다.

태국과의 경기까지 무실점 승리를 챙길 경우 8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로 38년 만에 새로운 기록이 탄생한다.

두 번째는 연속 무실점 경기 기록이다.

레바논전에서도 무실점을 지킨다면 1970년 대표팀이 세운 8경기 무실점(6승2무) 기록과 타이틀을 이룬다. 여세를 몰아 태국전에서는 9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단독 1위를 노릴 수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